금강산 어원과 담무갈보살, 회암사 유래 추적

최 원 혁 1)
대진대학교

Ⅰ. 들어가는 말
Ⅱ. 금강산의 어원
Ⅲ. 담무갈 보살의 유래
Ⅳ. 회암사의 유래
Ⅴ. 나가는 말

Ⅰ. 들어가는 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2]으로 한국과 인도의 고대 문화교류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크게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불교 기원지로서로서의 가야가 언급되고 또 중국의 서북공정에 따른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 있달아 금강산 이름의 유래에 대한 새로운 실마리가 생겼다. 유례없는 금강산 화재[3]로 인해 금강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필자는 이미 2016년 동아시아고대학회에서 '동아시아 고대문명 중심지로서의 포천에 대한 일고찰'이라는 금강산과 회암사 어원의 유래에 대한 글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기존 발표는 문제의 제기와 포천의 역사를 중심에 두고 연구한 바 이 글은 가야를 통해 새로이 발견된 단서들에 입각하여 금강산 어원과 담무갈보살, 회암사 유래를 살펴 보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 전에도 오늘날 인도의 많은 지식인들이 인도와 한국 고대 문명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미 일제 시대 노벨상을 받은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한국을 '아시아의 등불'이라 언급하여 한국인을 의아하게 만들었고 한국민족의 남방기원설을 주장한 '허황옥' 연구 전문가 김병모박사가 UN연구원시절 방문했던 인도박물관 관장이 인도와 한국의 고대문명 교류를 언급한 바 있다. 가야라는 지명 또한 불교 유적과 관련한 수많은 곳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다. 금강산에 관한 논문에서 가야를 먼저 언급하는 것은 금강산 이해에 가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한국에서 인도와 관계된 가장 국제적인 지명을 찾는다면 '금강산'이 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금강산 관광은 고려시대 원나라때부터 외국 사절에 대한 주요 선물이었다. 세계를 지배하던 원나라 조정이 원나라 당시 국제적 주류 문화였던 불교에서 인도와 가장 멀리 떨어진 금강산을 화엄경의 금강산으로 간주하고 많은 방문객이 있었다는 것은 고대 문화교류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도 아직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고 명확히 해명되지 못한 문제이다.

금강산의 '금강' 이란 이름은 불경인 '금강경' 혹은 반야심경의 원래 이름인 '금강반야바라밀경'과 같이 불교에서 비롯된 용어이다. '금강'은 흔히 다이아몬드를 뜻하는 '금강석' 때문에 다이아몬드의 개념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불교에서 '금강'은 번개에서 비롯된 번개와 같은 전광석화와 같은 '깨달음'과 '지혜'를 상징한다. 흔히 불교의 수행법인 '명심견성(明心見性)'은 번개와 같은 밝은 마음과 마음의 바탕 심성을 뜻하게 되어 '금강' 곧 뇌성은 불교의 상징이 된다. 금강산이 화엄경의 금강산으로 지목

1) 대순종학과 박사과정 수료, whcho7@naver.com
2) 허황후에 대한 관심은 인도에서도 일어나서 한국과 인도가 공동으로 드라마 제작과 공원을 조성한다고 한다.
3) 2019년 식목일 전날 강원도 토성 원암리로부터 발생한 산불은 인근 금강산 1봉우리 신선봉이 있는 고성일대로 짧은 시간에 확산되어 한국 화재 역사의 유례없는 대 사건이었다. 공교롭게도 2005년 전 같은 식목일 전날에 있었던 낙산사 화재가 민족 유산인 낙산사를 전소시킨 데 반해 민족종단이 있는 대순진리회 토성도장에 화마가 비켜간 것은 불행 중 다행한 일이었다.

된 기원을 흔히 당나라의 저명한 고승 징관의 이론으로 본다. 그러나 단순히 징관의 언급만으로는 고대문화에서 차지하는 금강산의 이례적 사례가 충분히 설명되기는 부족하다.

금강산은 백두산과 함께 민간전설과 신앙 등에서 한국인에게 신앙과 같은 존재로 현재까지 민족 종교 등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유래에 대한 이론적 고증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 글은 금강산 어원의 유래를 포천 근처의 회암사와 담무갈보살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회암사는 금강산의 담무갈 보살과 관계되는 가장 큰 규모의 사찰이자 동시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찰이기도 하다.

금강산 이름 외에도 한국과 인도가 연결되는 고리는 '보살'이 있다. '보살'의 어원과 관련된 많은 연구과제가 있다. '불' 이라는 용어의 기원과 함께 불교는 정작 핵심적인 용어는 아직 기원이 모호하다. 금강산 이름의 유래에 대한 이 연구는 가야를 통해 재조명된 '보살'과 불'에 대한 어원 추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금강산의 어원

금강산의 어원과 관련되어 현재까지 남아있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화엄경의 담무갈보살로부터 비롯된다는 이론과 금강산이 수미산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이론으로 구분된다. 널리 알려진 것은 담무갈보살과 관련된 이론이지만 수미산과 관련된 이론은 담무갈보살과 관련된 이론이 해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화엄경의 담무갈 보살로부터 비롯된다는 이론이 화제가 된 것을 살펴보면 이는 조선시대부터 비롯된다. 담무갈(曇無竭)은 산스크리트어 '다르모가타(Dharmogata)'의 음역으로, 법(法)을 일으킨다는 뜻이다. 법성(法性), 법용(法勇), 또는 법상(法尙)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법기(法起)라고도 한다. 따라서 담무갈보살은 법기보살(法起菩薩)의 음역이다.『조선왕조실록』 에 의하면 태종이 신하에게 묻되 "중국 사신이 올 때마다 반드시 금강산을 보고자 하니 그 까닭이 무엇이냐." 하니 하륜(河崙) 등이 아뢰기를 "『대장경』 속에 금강산 이야기가 실려 있어 널리 세상에 알려진 탓이다."라고 하였다.[4)]

금강산의 명칭은 『육십화엄경』보다 조금 후대의 경전으로 695~704년 실차난타가 번역한 『팔십화엄경(八十華嚴經)』에 등장하는데, "바다 가운데에 금강산이 있는데 옛적부터 보살들이 그곳에 머물렀다. 지금은 법기보살이 거처하며 12,000여 권속(眷屬)과 함께 머물며 항상 설법을 한다."고 하였다.[5)] 이 문구에서 법기보살은 담무갈보살의 음역이므로 담무갈보살을 동진시대 실존인물로 비정하기도 한다. 인도의 왕자가 불법을 찾아 금강신에서 실제 수도를 했다는 것이다. 번역할 당시는 695~704년이었지만 60화엄경이 번역된 시기가 동진시기이므로 동진시기(317-420년)로 간주한다.

반면 법기, 혹은 담무갈 보살이 실존 인물이라기 보다는 금강산의 절묘한 기암괴석을 나타낸다는 해석도 많다. 담무갈 보살이 실제 금강산에 있었다는 기록은 없고 법기의 뜻이 기암괴석과 같이 솟아오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기가 금강산의 모습을 표현한 용어라면 금강산 명칭의 유래와 더 연관될 수 있다. 금강산의 유래와 관련해서는 담무갈의 뜻보다는 '보살'이라는 용어에 더 의미가 담기어 있고 이는 다음 Ⅲ장 담무갈 보살에서 밝히고자 한다.

금강산의 위치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서책은 중국 당나라 때 승려인 징관(澄觀)의 『화엄경소(華

---

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 당초 1,200명의 권속이 12,000으로 후대에 확대된다. 1,200과 12,000은 봉우리수와 관계디고 이 수는 역학의 수와 연관된다.

嚴經疏)』이다. 그에 의하면 "동해의 동쪽에 금강이라는 산이 있다. 전체가 금은 아니지만 위아래 사방으로부터 산간에 이르기까지 흐르는 물과 모래 속에 금이 있다. 멀리서 바라보면 전체가 곧 금이라 할 만하다. 또 해동(海東) 사람들은 예로부터 서로 전하기를 이 산에 왕왕 성인(聖人)이 출현한다."고 하였다.[6]

오늘날 금강산이 불교의 금강산으로 신앙되게 된 것은 8세기 의상대사로부터 본다고 한다. 고려후기의 문신인 민지(閔漬)는 『금강산유점사사적기』에서, "신라의 옛 기록에 의하면 의상 법사께서 처음 오대산에 드셨다가 금강산에 이르자 담무갈보살이 현신하여 법사에게 말하기를 '오대산은 수행이 있는 사람들만 세간의 티끌을 벗어날 수 있는 땅이다'라고 이르셨다."하였다.

『동국여지승람』 유점사조(楡岾寺條)에는 월지국(月支國)에서 53불이 쇠북을 타고 이곳 해안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정주한 곳이 유점사의 터였다는 전설이 전한다. 신라 진덕왕 때에는 네 곳의 영지(靈地)가 있어 나라에서 큰일을 결정할 때 이 영지에 모여 의논을 하면 그 일이 꼭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다. 이 네 영지 가운데에 금강산이 들어가 있으나, 거기서 어떤 역사적 사건이 모의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금강산에 전하는 마의태자(麻衣太子)의 고사의 배경으로도 볼 수 있다.

금강산 신앙이 크게 유행한 것은 고려시대 원 간섭기로 본다. 금강산 신앙은 원 간섭기에 크게 유행하였다. 금강산 신앙은 고려만이 아닌 이웃한 원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당시 금강산은 동아시아의 불교 성지로 인식되었다고 한다.[7]

고려 원 간섭기의 학자이자 문신인 이곡(李穀)은 「장안사비(長安寺碑)」에서, "『화엄경』에 이르기를 동북 바다 가운데에 금강산이 있는데, 담무갈보살이 12,000의 보살과 함께 항상 반야(般若)를 강설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곡은 또 금강산 신앙의 유행으로 인한 그 지역의 잦은 불사를 "천자의 사신이 향과 폐백을 가져오는 것이 길에 늘어섰고, 사방의 사녀(士女)들이 천리길을 멀다 하지 아니하면서 소에 싣고 말에 싣고 등에 지고 머리에 이고 와 부처님과 스님에게 공양하는 자가 발꿈치가 서로 닿았다."고 서술하였다.

또 고려 공녀(貢女) 출신으로 원 순제(順帝)의 제2황후가 된 인물로 유명한 기황후(奇皇后)가 금강산장안사(長安寺)에 보시를 한 것을 들 수 있다고 한다.[8] 당시 기황후가 금강산 장안사에 보시할 때 "복을 빌어 위에 보답하고자 한다면 금강산 장안사만 한 곳이 없다."고 한 이야기는 당시의 금강산 신앙의 유행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전부터 원 황실과 관계를 맺고 있던 장안사가 담무갈보살이 상주하는 금강산에 소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황후 역시 황제와 아들의 복을 비는 불사를 펼치기에 가장 적합한 사원으로 장안사를 꼽은 것이다.

실제 원나라 사신의 방문 기록으로 전해지는 것을 살펴보면 원나라 때 고승인 몽산덕이(夢山德異)의 제자 철산소경(鐵山昭瓊)이 1304년(고려 충렬왕 30) 고려 불교계의 초청으로 고려에 왔을 때, 그가 방문한 장소 중 하나가 금강산이었다. 이때 철산소경을 금강산으로 안내한 민지는 사적기에 금강산을 담무갈보살의 주처라고 기록했다. 민지는 철산의 금강산 순례가 담무갈보살 신앙에 의해서 시행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회암사를 창건한 지공 도한 과거불의 수도처로 회암사터를 지목하고 회암사를 짓기전 금강산을 방문했다. 고려말의 왕사였던 나옹혜근(懶翁惠勤)의 스승인 원나라의 승려 지공(指空)이 1326년(고려 충숙왕 13) 고려를 방문했을 때, 지공은 개경을 거쳐 바로 금강산에 들어가 한 달 동안 유력하였다. 당시 지공이 찾은 곳은 금강산의 법기도량(法起道場) 즉 유점사였다고 한다. 도량의 이름을 법기도량이라고 한 데에서 지공이 법기보살(담무갈보살) 신앙의 발로에서 금강산을 참례하였음을 알려주고 있

---

6) 龍野沙代, 『金剛山 傳說의 文獻傳承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7) 윤기엽, 『고려후기의 불교』, 일조각, 2012.한국불교연구원, 『북한의 사찰』, 일지사, 1991.허흥식, 『고려로 옮긴 인도의 등불』, 일조각, 1997.

8) 같은 글

다.

금강산 명칭의 유래가 화엄경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이론은 문헌적 기록과 역사적 흐름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 이론은 '금강'이란 이름을 바즈라신의 '번개'와 '다이아몬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간주한다. '금강'은 산스크리트어 와즈라체디까(Vajracchedik?)를 뜻으로 풀어 해석한 것인데, 뜻은 '와즈라(Vajra)와 같이 강한 힘으로 절단하는 것' 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바즈라는 인드라신의 뇌전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 '금강반야바라밀경' 이란 제목의 뜻은 마음 속의 분별, 집착, 번뇌 등을 부숴버려 깨달음으로 이끄는 강력한 지혜의 경라는 뜻이 된다.

원래 산스크리트어 단어'바즈라'란 원래 낙뢰와 금강석을 동시에 의미하는 단어였다고 한다.[9] 금강석이 낙뢰보다 상징적 의미인 점에서 후대 파생된 의미 일 가능성이 있다. 만약 금강석이 다이아몬드의 듯이라면 당시 인도에서 다이아몬드로서 알려져 있었는지의 고증이 선행될 수 있어야 한다. '금강'의 원래 의미가 금강석보다는 '번개'와 가깝다는 것은 '금강'의 힘을 발휘한다는 '금강저((金剛杵)'가 뇌성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금강산 명칭이 담무갈보살과 연관 된다는 이론은 문헌기록과 역사적 고증이 풍부하지만 정작 '번개'와 '다이아몬드' 의 유래, 그리고 '금강'과 '산'과의 결합 배경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점이 있다. 보다 더 근원적인 설명을 필요로 한다. 이 근원적 설명을 보완하는 이론이 금강산을 수미산과 연결하는 이론이다.

한편 금강산 명칭의 유래가 수미산과 관련되었다는 이론을 살펴보면 이 이론은 다시 금강산이 금강산은 9산8해로 대표되는 불교 우주관에서 철위산에 해당한다는 이론과 금강산이 곧 수미산이라는 이론으로 구분된다.

먼저 금강산이 불교 9산8해 우주관의 철위산에 해당된다는 이론을 살펴보면 이는 앞에서 살펴본 담무갈 보살 이론과 연관된다. 발견된 기록에 의해 금강산이 동해의 산이라고 주장한 당나라 때의 청량국사(淸凉國師) 징관(澄觀: 73ß~839)은 『화엄경』을 주해(註解)하면서, 금강산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산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동해 지방에 있는 산이 분명하다고 서술했다. 여기서 금강산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산이란 것은 금강산이 불교 9산8해 우주관의 철위산에 해당된다는 불교 우주관을 지적한 것이다.

철위산이 오늘날 금강산이 된 것은 지형적인 요인과 과거불 신앙 요인으로 보는 이론이 있다. 먼저 지형적인 요인을 보면 한반도의 동해안에 있는 금강산이 절벽지형과 암석이 많아 멀리서 보면 빛나고 굳은 돌, 즉 '금강'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산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 산을 '개골산'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징관의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퍼지게 되자, 사람들은 징관이 말했던 산이 바로 이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점점 믿게 되었고, 결국 이 산을 '금강산(金剛山)'으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과거불신앙과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면 금강산과 관련된 과거불 신앙은 화엄경의 담무갈 보살과 다른 전승도 풍부하다. 담무갈 보살과 다른 전승은 과거7불과 관련된 전승이다. 담무갈은 보살이지만 과거불은 석가와 동급인 부처이다. 『삼국유사』「아도기라阿道基羅」를 보면 고구려 아도화상阿道和尙의 어머니 고도령高道寧이 아들 아도를 신라에 보내면서 "이곳 고구려는 불법을 알지 못하나 그 나라(신라)의 경도京都 안에는 절터 일곱 곳이 있으니 이는 모두 전불前佛 시대의 절터니라" 라고 말한 내용이 실려 있다.

실제 주로 캔지스 강 북쪽에 살던 석가족을 포함한 종족들은 아리안계 백인이 아니라 황인종이었고 넓은 의미의 몽골족이었다 하는 이론이 있다. 석가족이 황인종이었을 것이라는 학설은 19세기 학자들

9) Sarat Chandra Das (1902). 《A Tibetan-English dictionary with Sanskrit synonyms. 위키피디아에서 재인용. https://ko.m.wikipedia.org/wiki/%EA%B8%88%EA%B0%95%EC%A0%80

도 주장했다.[10] 화엄사를 창건한 지공 또한 담무갈보살 외에 과거7불과 관련한 기록도 남기고 있다. 고려 충숙왕 15년에 인도의 108대 조사祖師인 지공선사指空禪師가 양주 천보산天寶山 회암사檜巖寺에 와서 그 절터를 둘러보고 말하기를 "상세칠불上世七佛 시절의 대가람 터다大伽藍之址也)"라고 한 바 있다.[11]

금강산이 불교 9산8해 우주관의 철위산과 관련된다는 내용은 금강산과 관련된 선녀와 나무꾼 전설에 나타나는 '삼천대천세계'와도 통한다. 9산8해(九山八海)는 불교의 우주론에서 하나의 우주 즉 1개의 3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1수미세계(一須彌世界)에서, 금륜(金輪) 즉 대지(大地) 위에 존재하는, 수미산(須彌山)을 포함한 아홉 대산(大山)과 그 산들을 둘러싼 여덟 대해(大海)를 말한다고 한다.[12] 장아함경에 불교 9산8해 중 제9산인 철위산이 금강위산으로 나타난다.

불교 9산8해 우주관은 《장아함경》 제18권 〈30. 세기경(世紀經)〉, 《기세경》(起世經) 제1권 , 《기세인본경》(起世因本經) 제1권 등의 경전과 《구사론》 제11권 등의 부파불교의 논서들과 《유가사지론》 제2권 등의 대승불교의 논서에서 나타난다고 한다. 각 경전에 따라 순서는 다소 다른 점은 있지만 철위산이 제9산이라는 점은 다르지 않다고 한다. 9산(九山) 중 4보(四寶)와 7보(七寶)로 이루어진 제1산인 수미산과 쇠[鐵]로 이루어진 제9산인 철위산을 제외한 일곱 산은 모두 보석인 금(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7금산(七金山)이라 한다. 9산 중 수미산은 하나의 거대한 산이지만 나머지 여덟 산은 명칭만 산일 뿐 실제로는 산맥(山脈, mountain range)이라고 한다.

삼천대천세계라는 용어가 불교 우주관에서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라고 할 때 금강산이 9번째 산인 철위산에 해당된다는 것은 수미산과 대응구조를 이룬다. 실제 금강산이 곧 수미산이라는 이론이 후대에 출현하였다.

금강산이 철위산이 아니고 금강산 자체가 수미산이라는 이론은 최근 작고한 변광현 교수에 의해 주장되었다. 실제 화엄경에서 금강산이 지목된 것도 우주관과 직접적으로 연결한 문헌은 찾을 수 없지만 금강을 언급한 것이 수미산과 연관된다 할 수 있다. 불교의 우주관에서도 철위산이 9산이라고 하지만 2-8산까지는 모두 금으로 된 산이고 첫 번째 수미산과 9번째 철위산만 실제산으로 나타나며 역학에서도 1과 9가 서로 대응된다고 할 때 금간산이 수미산일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은 있다.

금강산 자체가 수미산이라는 이론은 불교 우주관으로 추론될 수도 있지만 변광현 교수의 이론은 주로 역사적 측면으로 설명한다, 고대문명의 중심지로서 금강산 이론은 2005년 이 이론을 발표하고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는 전 안동대학교 교수 변광현의 이론이다.[13] 변광현은 고대문명의 중심지로서 금강산 이론을 문헌과 유적, 이론이라는 3중 증거법으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변광현은 서울대학교 미술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에서 고인돌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세계적인 고인돌 전문가였다.

변광현은 단군과 요임금이 건국했다는 BC 2300년경 기존 고대문명이 위성 충돌로 인한 자연재해로 붕괴되었다고 한다. 산해경과 서경, 불경에 나오듯이 당시 태양이 10개로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금강산 위에만 태양이 비치고 나머지 지역은 어둠에 덮였다고 한다. 금강산을 중심으로 태양이 조금씩 넓어지면서 새로운 청동기 문명이 빗살무늬토기와 같이 전파되어 나갔다고 한다. 불교의 수미산, 산해경의 고사는 당시 금강산의 일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한다.[14]

---

10) 와타나베 쇼코, 『불타 석가모니』,문학의 숲, 2010, 129쪽

11) 김철웅, 「고려말 회암사의 중건과 그 배경」, 『사학지』 32, 단군사학회 ,1997; 한지만·이상해, 「회암사의 연혁과 정청.방장지에 관한 복원적 연구」, 『건축사연구』 17, 2008.; 염종섭, 「檜巖寺修造名分의 변화와 종교적 해법의 유사구조」, 『건축역사연구』 17권, 2008년.

12) 운허. 동국역경원 편집, 편집. 《불교 사전》, 위키피디아에서 재인용. https://ko.m.wikipedia.org/wiki/%EA%B5%AC%EC%82%B0%ED%8C%94%ED%95%B4

13) 변광현, 『고인돌과 거석문화』, 미리내, 2001; 변광현, 『검의 기원』, 미리내, 2002.

14) 성삼제, 『고조선, 사라진 역사』, 동아일보사, 2014

변광현이 제시하는 3가지 근거는 첫째 유물로서 고인돌 둘째 문헌으로서 산해경, 불경 셋째 이론으로서 피라미드 연대조작설이다, 첫째 고인돌을 살펴보면 변광현 교수는 한국은 세계 고인돌의 1/2 이상이 집약되어 있으므로 한국이 고대문명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한다. 그러나 고대문명사에서 한국이 고대문명의 기원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영국이 피라미드 발굴을 계기로 피라미드의 연대표를 2,000년 이상 올리면서 시대가 역전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서양은 이후 외계인 담론을 확장 했다고 한다. 만약 피라미드의 연령을 변경 전으로 환원하면 모든 고대 유물은 한국 금강산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변교수는 주장했다. 여기서는 우선 금강산에 대한 사실적인 것을 제시하고 다음 담무갈 보살에 대한 장에서 세부적인 것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Ⅲ. 담무갈 보살의 유래

금강산에 대한 기존의 견해는 금강산의 유래를 일종의 신앙으로 간주하고 신라시대부터 기원한 불국토사상의 연장으로 본다. 그러나 최근 가야 연구의 재조명은 기존 견해와 달리 실제 금강산이 화엄경의 금강산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금강산이 실제 화엄경의 금강산이라는 이론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미 삼국시대부터 언급된 기록이 실제라고만 간주하더라도 많은 기록이 있다.

금강산이 실제 화엄경의 금강산이라는 변광현의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기존 이론은 크게 대승불교 용수 보살의 '바다'이론과 오늘날 세계불교 연구의 저명한 권위자인 하바드 대학교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의 '불교해양전파론'이다. 실제 산스크리트어 대가 윌리엄 제임스가 쓴 옥스포드 사전에는 석가모니는 단군족이었다고 강상원은 주장한다.[15]

먼저 대승불교 용수 보살의 '바다'이론을 살펴보면 담무갈 보살의 '보살' 직위와 연관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주지하다시피 '보살'은 대승불교의 대표용어이고 용수보살은 대승불교의 대표자다. 먼저 대승불교는 불교의 정체성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한다. 우선 대승불교는 경전 자체가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서가여래의 직접적인 설법이라기보다 불교적 사고방식으로 간주될 정도다. 『반야심경』, 『화업경』, 『법화경』, 『금강경』, 『천수경』 등으로 대표되는 대승불교의 경전은 소승불교에서는 전혀 출현한 바가 없고 따라서 대승불교에서 새롭게 출현한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과거불은 소승불교에서는 실체가 불분명하다. 소승불교에서는 힌두교의 신을 대승불교에서 수용했다고 한다. 심지어『반야심경』, 『화업경』, 『법화경』, 『금강경』, 『천수경』 의 출처인 용수보살은 이 대승경전을 바다의 용궁에 가서 가져왔다고 했고 대승불교계에서는 이를 모두 공인했다, 주지하다시피 소승불교인 남방불교와 대승불교인 북방불교는 불기 자체도 다르다.

용수보살의 '바다'와'용궁'이 대승불교계의 공인을 받았다는 것은 당시 '바다'와 '용궁'이 오늘날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16]'천독'과 같은 용어가 보여주듯 '바다'와'용궁'은 오늘날 금강산이 있는 중국 동쪽의 군자국으로 당시 사용되었다고 한다. 박용숙 등 '바다 이론가'들은 결국 징관은 화엄경의 바다를 당시의 용어로 풀어 오늘날 바다와 달리 동쪽나라로 해석하여 금강산을 동쪽나라의 산이라고 해석하였다고 한다.

결국 이미 대승불교당시에도 불교가 인도보다는 수미산을 금강산이 있는 동쪽에서 보고 불교가 동쪽에서 왔다는 것을 공인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담무갈보살도 보살이고 금강산도 대승경전인 화엄경

15) 강상원, 『조선고어실담어주석사전』, 한국세종한림원출판부, 2012
16) 박용숙, 『고대사 샤먼제국 - 헤로도토스 사마천 김부식이 숨긴 역사 』, 소동, 2010.

이라는 점은 화엄경 자체가 이미 금강산을 실제 한국의 금강산으로 간주하고 썼다는 증거가 된다. 따라서 원나라 귀족들도 금강산을 화엄경의 금강산으로 인정했다고 바다 이론가들은 주장한다.

다음 오늘날 세계불교 연구의 저명한 권위자인 하바드 대학교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의 '불교해양전파론'을 살펴보면 '불교해양전파론' 또한 '바다이론가'의 이론에 실제 사례를 보여준다. 전 세계의 불교자료의 디지털화 프로젝트 책임자인 루이스 랭카스터는 관세음보살 등 불교 보살의 여성화를 해양전파의 근거로 간주한다.[17] 종교는 상업과 친화성이 있어 실크로드를 통해 불교가 전파되듯 불교는 해상 무여강을 통해 전파되었고 지상보다 더 강력했기에 불상들이 해양문화인 여성성을 나타나게 되었다고 한다. 허황옥도 해양문화와 관계된 쌍어문과 관계되고 실제 인도와 금강산은 허황후처럼 바닷길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전통적으로 '바다'는 루이스 랭카스터와 달리 사막으로 간주되기도 했다.[18] 인도와 금강산은 사막으로 분리되어 있고 사막너머의 세계가 군자군의 용궁이 된 셈이다.

기존이론을 수용하는 데는 두 가지 난점이 있고 최근의 이론들이 난점을 해결해주고 있어 화엄경의 금강산이 실제 오늘날 금강산이란 이론에 힘을 실어준다. 두 가지 난점 중 첫째는 불교가 금강산에서 발생했다면 다른 유사한 사례가 있으며 어떤 원리이가 하는 점과 두 번째로 금강산이 군자국으로 불리는 중심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역사적 근거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첫째 불교가 금강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한 논의는 최근 가야와 관련된 논의에서 나타났고 두 번째 문헌적 근거는 최근 중국의 서북공정에서 타나났다.

먼저 첫 번째 원리적 측면을 살펴보면 가야의 갯벌과 하천 그리고 태양이 불교의 발생원리라는 점이다. 최근 가야에 발견된 유물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이 솥과 시루이다. 솥과 시루는 진표로 대표되는 미륵불관련 사찰 곧 금산사, 법주사, 발연사에도 나타나는데 솥과 시루가 주목되는 것은 솥과 시루에서 나타나는 물과 태양의 순환원리가 불교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불교의 윤회원리가 인간의 일생에만 치우쳤다면 고대 과거 불교는 윤회를 인간 뿐 아니라 전 사물에 다 적용시켰다. 특히 한반도에서 불교와 관련하여 가야에 주목하는 것은 가야가 당시 가장 발전된 문명의 국가이기도 했지만 인도의 가야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불佛 이라는 글자 자체가 태양을 향해 활과 화살로 스스로를 측정하고 깨닫는 것이라고 한다.[20] 동북아의 대표적인 용봉문화는 태양신으로서의 일월이 봉을 상지한다면 태양의 힘을 전달하게 해 주는 금성이 곧 오행의 원리가 된다. 고대의 뱀은 태양의 변화, 불은 태양에너지의 순환을 의미한다. 태양이 가진 빛, 열, 습도는 각각

다음 문헌적 측면을 살펴보면 중국의 서북공정에서 단군이 황제로 비정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이다.[21] 황제가 단군으로 비정되는 것은 단군과 같이 황제가 신선으로 남았다는 점이다 황제는 400여년 이상을 살았고 이는 400여년 후 자신의 고손자에 가까운 요임금 시절 황제가 동쪽에서 단군으로 군자국을 개국한다고도 한다. 한국 선도와 도교의 기원에 대한 논쟁이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지만 중국의 서북공정으로 의외의 실마리가 풀리게 된다.

황제와 단군이 서로 연결된다면 불교의 기원이 태양신과 연결되어 불교이해와 전파의 난제 해결에 큰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결국 담무갈보살은 불교 이전의 불교에 대한 논의로 회암사에 대해 살펴볼 계기가 된다

---

17) 한국연구재단, 국제인문·문화축제, 경주, 2013 (https://news.joins.com/article/13154058 중앙일보 기사검색, 2019.4.17.)
18) 박용숙, 『황금가지의 나라』, 철학과현실사, 1993.
19) 한종섭, 『인류문명의 발상지 한국 2』, 동천문화사, 2016
20) 같은 책
21) 주학연, 『진시황은 몽골어를 하는 여진족이었다: 비교언어학으로 밝혀낸 중국북방민족들의 원류』, 문성재 역, 우리역사연구재단, 2009. 우창수는 중국사회과학원의 공인을 받은 주학연의 연구가 황제를 동북에 비정하던 동북공정에서 다시 서북의 강씨로 비정하는 중국의 입장전환을 대표한다고 한다.(우창수, 『아사달 인류최초의 문명을 품다』, 아사달문명출판사, 2012)

Ⅳ. 회암사의 유래

회암사도 금강산과 같이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지만 매우 많은 의문점을 남기는 사찰이다. 회암사는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찰이었고 국제 불교계에서 가장 거물이었던 지공이 직접 과거불의 수행터로 수기를 주고 지은 절이며 조선 역사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절임에도 불교적인 측면에서만 검토되어 왔다.[22] 회암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점은 조선초기 대두배경이다.[23] 회암사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절이로 건축을 하게 된 시대적 배경은 연구되었지만 건축 후 조선시대에까지 무학대사와 태조 이성계에 의해 대두되게 된 배경은 거의 조명되지 못했다.[24]

회암사 터는 인도 왕자였던 지공(指空)대사가 북경에서 석가의 화신으로 추앙되고 원나라 왕실에 봉사하는 중 중국 북경으로 유학간 나옹과 무학대사의 권유를 받아 금강산의 담무갈 보살 유적을 2년여 소요하고 방문한 곳이다.[25] 지공은 회암사터에서 이곳이 인도의 과거불 수행터인 서천 아란불사와 유사한 곳이라 했고 후대에는 가섭불이 설법하던 곳이 서천 아란불사는 뿐 아니라 회암사터로 간주된다. 그 근거로 회암사터를 세 개의 산과 두 개의 물인 삼산양수라 했다. 삼산양수에서 양수는 임진강, 한강 삼산은 삼각산으로 비정되었다. 실제 오늘날 회암사는 천보산, 해룡산, 왕방산 사이에 있고 포천과 동두천이 주변에 있다. 가섭불터라는 용어자체가 단군의 흔적이라는 연구도 있지만 [26] 삼산양수 또한 명당으로서 뿐만 아니라 삼천양지라는 음양오행적 개념도 포함되어 더 의미가 있다.

회암사가 전불시대 가람지라는 것은 과거 불국사도 받지 못한 한국 불교 최고의 위상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기존 연구는 회암사가 전블시대 가람지라는 것은 나옹의 죽음 이후 해체 위기에 바진 회암사를 살리기 위해 지공의 말을 과장한 것이라고도 한다.[27] 그러나 지공이 터를 제자인 나옹에게 직접 지정해 주었고 공민왕에 의해 세워졌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조선초기까지 매우 중요시된다. 이는 담무갈 보살 해석의 연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선 가섭불은 석가불 세대에 출현하다는 7명의 부처중 중 6번째인 석가모니 바로 전불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과거불이란 개념자체가 이미 불교 이전 문화와 관계있다. 가섭불은 한국 고대사에서 가섭원 부여로 나타나고 현대 지명에도 중동에 카스피해가 있다. 회암사가 조선시대에까지 중시된 것은 지공의 의도와 다른 의도가 개입되었다 할 수 있다.

회암사는 우선 위화도 회군과 연관된다. 나폴레옹의 워털루전쟁처럼 위화도 회군의 결정적 계기는 원나라에 정탐하러 간 무학대사의 제보였다고 한다.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고 하여 '무학(無學)'대사라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 무학은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북경 유학파 출신이고 당대 최고 지성이던 지공과 나옹을 스승으로 모시던 인물이었다. 무학대사는 일찍이 이성계를 만나 조선을 기획한 인물로 지목되는데 무학은 국명을 '조선'으로 택하게 하고 경북궁 등 서울 궁궐을 천문에 맞게 지은 고대사의 해박한 인물로 나타난다.[28] 심지어 무학대사는 영해 박씨로 박제상의 부도지가 전해져 온 집안으로도

---

22) 지공대사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가는 허흥식으로 그 지공 관련 연구현황은 지공연구의 현황과 보완에 정리되있다. 김철웅, 「고려말 회암사의 중건과 그 배경」, 『사학지』 32, 단군사학회 ,1997;168쪽에서 재인용. 김철웅의 연구 또한 회암사 중건을 불교적 측면으로 이해한다

23) 염중섭은 회암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왔지만 중건배경과 조선조 대두배경에 대한 해명은 부족했다고 하다.(염종섭, 「檜巖寺修造名分의 변화와 종교적 해법의 유사구조」, 『건축역사연구』 17권, 2008년., 35쪽)

24) 건축배경에 대해 염중섭은 원명교체기의 혼란으로 나옹의 스승인 지공대사의 사리와 영골 봉안이 어려워지자 회암사로 옮기고자 한 것을 회암사 중건배경으로 간주한다 (같은 글, 39쪽)

25) 같은 글,

26) 정경희 , 「삼국시대 선·불 습합의 미륵사상」, 『단군학연구』 16호, 2007년6월., 초록

27) 염중섭, 같은 글, 42쪽

간주된다. 무학은 결국 고대사의 부활을 위한 기획으로 회암사의 중창을 나옹과 함께 기획하였다고 볼 수 있다. 회암사가 있는 천보산은 고려말부터 부활한 단군 신앙의 진원지인 행촌 이암과 관계되기도 한다.

무학대사와 고대사의 또 다른 연결고리는 금산사에 전하는 무학결의 한 구절이다. 원래 무학결은 풍수에 대한 내용인데 무학대사가 지었다고 하여 「무학결」이라고 한다. 그 글에는 '천황지황인황'이 언급되고 29)'천하지대금산'이라하여 금산사와 금강산을 연결한다. 무학대사가 금강산과 회암사를 연결시킬 수 있었던 배경은 과거 자장이 한국의 오대산을 인도 문수보살의 오대산과 연결한 것을 배경으로 삼았다고 한다. 특히 오대산은 귀족적인데 반해 금강산은 대중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30)

무학대사가 고대사 부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만큼 황제/단군 이후 한국 고대사의 금강산은 부침을 겪어왔다. 금강산의 뇌성 신앙은 뇌법신앙으로 중국에 전해졌고31) 태양과 금성의 원리는 음양오행으로 전파되었다.32) 태양과 금성은 용봉문화의 원조로서 태양의 움직임이 음양으로 봉과 관계되고 금성의 움직임이 오행과 관계되어 용과 관계된다. 이는 수메르의 중동과 아메리카에도 오늘날 발견된다.33) 회암사(檜巖寺)라는 지명 또한 전나무와 관계되겠지만 단군과 같은 나무 목을 강조하고 있다.

금산사가 금강산과 연결되는 것은 금산사 설립 전 663년 백촌강 전투이다. 백촌강 전투는 198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4갑자일인 663년 동지에 종결된 듯하다.34) 백제의 마지막 전투인 백촌강 전투는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전으로 나당연합군이 백제-고구려-일본 연합국을 이겼다. 오늘날 한반도 서부의 작은 백제를 중심으로 한 전투를 국제전이라 하는 것은 당시 당나라와 싸워 승산이 있었던 백제사는 오늘날 많은 왜곡이 있었다고 한다.35) 백제는 신라에게 패배했지만 뒤이은 신라와 당나라의 전투에서는 신라를 편들어 당나라를 물리친다. 이후 백제의 해양왕국 기술은 신라가 고조선의 군자국 이미지를 계승하는데 일조한다.36) 일본의 큐우슈우는 단군의 九州(구주)문화를 연상시킨다.37) 백제를 기념하여 금산사가 세워지고 금산사와 연결된 금강산에 금산사를 세운 진표에 의해 미륵이 세워진다. 무학대사의 『무학결』에 나오는 '천황 지황 인황 후 천하지 대금산'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변광현의 이론을 재해석한다면 백촌강 전투는 금강산을 중심으로 펼쳐나갔던 민족들이 다시 원시반본하는 원리를 가진 전투였다. 기원전 4000년 이전 복희 시대 세계에서 갯벌이 가장 큰 우리나라에서 싹튼 용봉문화는 세계 각지로 퍼져나간다.38) 이들은 수메르, 아리아, 슬라브족을 이루면서 각자 살다가 기후변화로 다시 금강산으로 모이게 된다.39) 이때의 흔적이 아프리카에도 남아있어 현대 한국어와 가장 비슷한 언어는 아프리카의 르완다어라는 연구도 있다.40) 정형진은 이때 처음으로 한반도로 다시 회귀하기 시작한 민족이 신농씨 계열의 공공족이라고 한다.41) 오광길은 이 공공족을 수메르 계열로 본다. 정형진은 두 번째로 이동하는 것이 곰토템을 가진 환웅족이고 단군도 이에 연결된다고

---

28) 정태민, 「별자리에 숨겨진 우리역사」, (서울: 한문화, 2007)
29) 이중재는 『사요위선』에 천황은 BC 8479sus 안물이라고 한다. 이중재, 『한민족사』,1990, 평화사,478쪽
30) 염중섭, 같은 글, 42쪽
31) 안동준, 『한국도교문화의 탐구』, 지식산업사, 2008.
32) 김상일,, 『윷의 논리와 마야역법』, 상생출판, 2015.
33) 김정민,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 글로벌콘텐츠, 2015
34) 졸고, 「663년 백촌강 전투의 동양 천문학적 의의」, 동아시아 고대학회 第57回 全國學術大會 발표집, 2015년
35) 우창수, 『아사달 인류최초의 문명을 품다』, 아사달문명출판사, 2012
36) 권덕영, 『신라의 바다, 황해』, 일조각, 2012 341쪽,
37) 이종환, 『(역사에서 말살된 왕국) 고대 가야국이 세운 구주왕조』, 대왕사, 1987
38) 한종섭, 『인류문명의 발상지 한국』, 집문당, 2013
39) 졸고, 두 개의 동이족에 대한 이견(異見) -오광길의 '알알문명' 이론을 중심으로」,동아시아 고대학회 발표집, 2015년
40) 임환영, 『아리랑 역사와 한국어의 기원』, ㈜세건엔터프라이즈, 2015.
41) 정형진, 『천년왕국 수시아나에서 온 환웅』, 일빛, 2006.

한다.[42] 오광길은 이를 아리안족으로 보고 아리안족은 곰토템이 있었다고 한다. 현지에 있던 곰토템 민족과 결합하여 범토템과는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43] 서양은 『바빌로니아에서 온 황제』를 쓴 라쿠페리[44]나 금문의 기록을 분석한 낙빈기, 김재섭은 이 당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45]

다시 변광현 이론에 따르면 요임금 시절 기록에 나타나는 기후변화로 과거 문명이 몰락하고 금강산에 세계인구의 대표적 인종이 집결한다. 당시 햇빛이 금강산에만 비추고 그 햇빛이 점점 넓어져 다시 금강산문명이 퍼져 나가는 것이 빗살무늬토기와 고인돌의 이동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다시 세계문명이 부활하여 차축시대에 이르게 된다. 금성의 여신 비너스, 아슈타르테가 중동에 분포하는 것은 여기에 이유기 있다.[46] 금강산을 벗어난 문명이 다시 회귀하여 금강산 문명이 패배한 것이 백촌강 전투라 볼 수 있다.[47] 이후 한국사는 금강산을 지키는 수준의 국력을 유지한다. 오늘날도 북한이 금강산을 지키는 역할을 본의 아니게 하고 있다. 풍수지리이론에서는 지기(地氣)도 적재적소에 발음하려면 지켜야 된다고 한다.

불교만큼 풍수지리에 밝았던 무학은 이성계와 함께 고대사 복원에 의기투합하고 이를 회암사의 대두배경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성계가 왕자의 난 이후에도 수도하기로 선택한 곳이 회암사이고 왕궁과 같은 양식으로 건축하게 한 것은 고대사 복원의 의지를 보여준다. 실제 조선왕조 내내 내부적으로 복원의지를 표명했고 고종때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지자 전국의 팔각정을 복원하여 고대사를 복원하고자 했다고 한다. 조선시대는 서인의 대표였던 율곡이 금강산에 대한 글을 쓴 이후로 주희의 무이구곡을 금강산에서 찾게 되었다. 이후 금강산은 김삿갓의 시에서 보듯이 민중 신앙이 된다.

Ⅴ. 나가며

42) 같은 책

43) 동이족에서 곰족과 범족의 루트는 이형구, 이기환,『코리안루트를 찾아서』, 성안당, 2009

44) 쑨장, 「황제(黃帝)는 바빌론에서 왔다 : 라쿠페리의 '중국 문명 서래설'과 동아시아로의 전파」, 『개념과 소통』 5, 2010.

45) 김재섭, 『금문속의 고조선』, 우반재, 2011

46) 박용숙,『샤먼문명 (별과 우주를 사랑한 지동설의 시대)』, 소동, 2015.; 박용숙, 『천부경 81자 바라밀: 천부경에 숨겨진 천문학의 비밀』, 소동, 2018,

47) 차축시대 이후의 회귀에 대해서는 박병섭, 「고조선과 스키타이족 문화에 나타난 한국철학의 시원」,『고조선단군학』15, 2006, pp.90- pp.92, KBS 몽골리안루트 5부,그뤼포스의 후예들, 2001.3.6. 방영, ; 박병섭,『고조선을 딛고서 포스트고조선으로』,창고거울,2008

참고문헌

강상원, 『조선고어실담어주석사전』, 한국세종한림원출판부, 2012
권덕영, 『신라의 바다, 황해』, 일조각, 2012
김상일,, 『윷의 논리와 마야역법』, 상생출판, 2015.
김재섭, 『금문속의 고조선』, 우반재, 2011
김정민,『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 』, 글로벌컨텐츠, 2015.
김철웅, 「고려말 회암사의 중건과 그 배경」, 『사학지』32, 단군사학회 ,1997
김채수, 『알타이문명론』 , 박이정, 2013.
김철웅, 「고려말 회암사의 중건과 그 배경」, 『사학지』32, 단군사학회 ,1997
박병섭, 「고조선과 스키타이족 문화에 나타난 한국철학의 시원」,『고조선단군학』15, 2006,
, 『고조선을 딛고서 포스트고조선으로』,창고거울,2008
박용숙, 『샤먼제국』, 소동, 2010
, 『황금가지의 나라』, 철학과현실사, 1993.
, 『샤먼문명 (별과 우주를 사랑한 지동설의 시대)』, 소동, 2015
, 『천부경 81자 바라밀: 천부경에 숨겨진 천문학의 비밀』, 소동, 2018,
변광현, 『검의 기원』, 미리내, 2002.
, 『고인돌과 거석문화』, 미리내, 2001.
, 『상고시대에 대하여』와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
, 「암각화 탁본에 대한 기법 연구」,『안동대학논문집』19, 안동대학, 1997,
성삼제, 『고조선, 사라진 역사』, 동아일보사, 2014
쑨장, 「황제(黃帝)는 바빌론에서 왔다 : 라쿠페리의 '중국 문명 서래설'과 동아시아로의 전파」, 『개념과 소통』 5, 2010.
염종섭, 「檜巖寺修造名分의 변화와 종교적 해법의 유사구조」, 『건축역사연구』17권, 2008년.
와타나베 쇼코,『불타 석가모니』, 문학의 숲, 2010
안동준, 『한국도교문화의 탐구』, 지식산업사, 2008.
龍野沙代, 『金剛山 傳說의 文獻傳承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우창수, 『아사달 인류최초의 문명을 품다』, 아사달문명출판사, 2012
윤기엽, 『고려후기의 불교』, 일조각, 2012.
운허. 동국역경원 편집, 편집. 《불교 사전》
이종환, 『(역사에서 말살된 왕국) 고대 가야국이 세운 구주왕조』, 대왕사, 1987
이중재, 『한민족사』,1990, 평화사,
이형구, 이기환,『코리안루트를 찾아서』, 성안당, 2009
임환영, 『아리랑 역사와 한국어의 기원』, ㈜세건엔터프라이즈, 2015.
정경희 , 「삼국시대 선·불 습합의 미륵사상」, 『단군학연구』16호
정태민, 「별자리에 숨겨진 우리역사」, 서울: 한문화, 2007
정형진, 『한반도는 진인의 땅이었다』. 알에이치코리아, 2014.
, 『천년왕국 수시아나에서 온 환웅』, 일빛, 2006.
조철수, 『고대메소포타미아에 새겨진 한국신화의 비밀』, 김영사, 2003
주학연, 『진시황은 몽골어를 하는 여진족이었다: 비교언어학으로 밝혀낸 중국북방민족들의 원류』,

문성재 역, 우리역사연구재단, 2009
최원혁, 「663년 백촌강 전투의 동양 천문학적 의의」, 동아시아 고대학회 第57回 全國學術大會 발표집, 2015년
, 「동아시아 고대문명 중심지로서의 포천에 대한 일고찰」,동아시아 고대학회 발표집, 2016년
, 「두 개의 동이족에 대한 이견(異見) -오광길의 '알알문명' 이론을 중심으로」,동아시아 고대학회 발표집, 2015년
한영우, 『행촌 이암의 생애와 사상』, 일지사, 2002
한종섭, 『인류문명의 발상지 한국 2』, 동천문화사, 2016
, 『인류문명의 발상지 한국 1』, 집문당, 2013
한국불교연구원, 『북한의 사찰』, 일지사, 1991
한지만·이상해,「회암사의 연혁과 정청.방장지에 관한 복원적 연구」, 『건축사연구』17, 2008
허흥식, 『고려로 옮긴 인도의 등불』, 일조각, 1997.

Sarat Chandra Das (1902). 《A Tibetan-English dictionary with Sanskrit synonyms.

사이트

회암사박물관, http://museum.yangju.go.kr/site/hasj/main.do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13154058 중앙일보 기사검색, 2019.4.17